



정교회 주보



성 포티니 사마리아 여인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주일

뜨리오디온 시작

성 에프스파티오스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제 4조, 조과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4조 부활찬양송 / 82, A 214

•주일 입당송 / 14, A 42

•주교 찬양송 / 84, B 263

•성당 찬양송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주일 시기송 / 220, B 270

•사도경 : II 디모테오 3:10~15 / 봉독서 407

•복음경 : 루가 18:10~14 / 133, B 85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포티니 사마리아 여인

성 포티니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의 시카르라는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성인에 대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4장 1~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남자들의 배우자, 이오시와 포티노스 순교자들의 어머니, 아나톨리스, 포토스, 포티도스, 빠라스케비스 순교자들의 여형제였습니다. 여인은 매일 정오에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으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은 이 여인과 경이로운 대화를 나누었고, 주님께서 “영원히 목

마르지 않을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대화 후, 즉시 자신의 삶을 바꿨습니다. 첫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들 중의 한 명으로 포티니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는 친척들과 함께 사도들을 따르면서 사도들의 사업에 동참하였습니다. 아프리카와 로마에서 복음말씀을 전파하였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끔찍한 박해를 받고 순교하였습니다.(1세기)

죄는 영적, 육적 병의 근원

죄는 육신과 마음의 병을 가져오게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병자의 병을 고쳐 주시면서 충고해 주신 말씀으로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요한5,14)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들에게 죄의 사함을 받고 육신과 마음의 병을 치료 받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바로 회개와 고백성사와 성유성사로 가능하다.

회개와 고백성사는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료해준다.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죄를 회개하고 고백성사에 임하여 죄의 사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고백성사를 통하여 거룩한 은총으로 마음의 치료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치료를 받게 된다.

이런 예를 가파르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며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 일어나 요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거라.’하시자 중풍 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요를 걷어 가지고

나갔다.”(마르코 2:5,11-12)고 하였다.

또는 앓는 사람이 있으면 성유성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성유성사에서 사제는 병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성된 기름을 발라준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낮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낚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온전해질 것입니다.”(야고보서 5:14-16)

사제의 기도와 더불어 병자의 간절한 기도는 거룩한 성령의 은총을 받게 하여 병을 치료하게 한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된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중한 죄를 짓게 된다. 그로부터 오는 죄의 결말은 마음과 육신을 병들게 할 뿐이다. 이러한 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기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14)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끊임없이 드리는 마음의 기도(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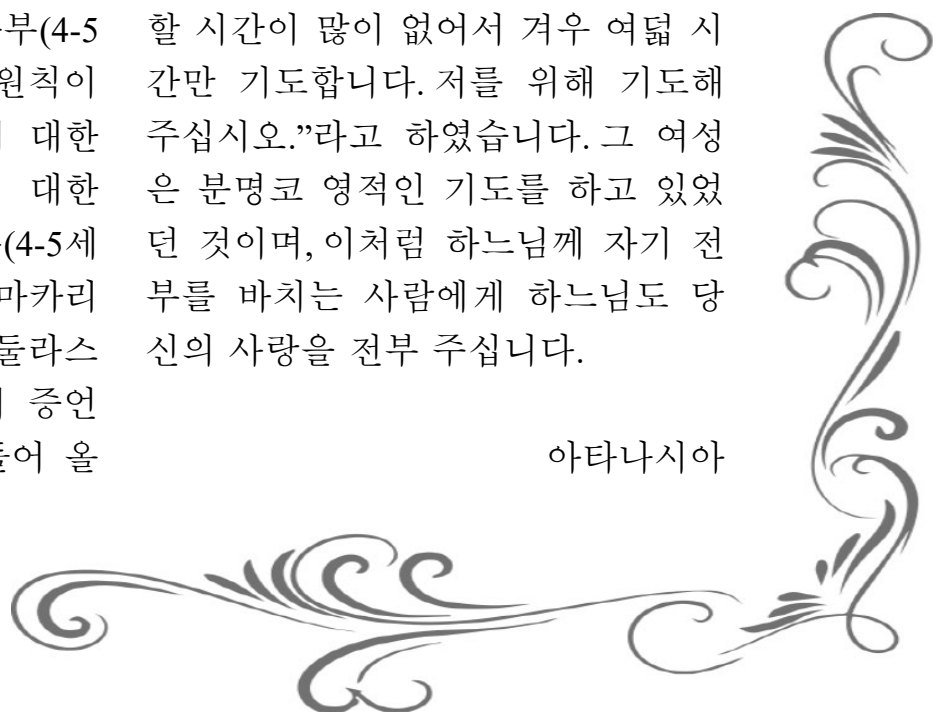
쉽 없이 드리는 기도는 위대한 사랑에서 옵니다. 물론 우리가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남을 비난할 때는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일에 의해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은 계속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이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사랑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기도를 위해 제공되며, 따라서 원하는 어느 때든지 그리고 온 생애 동안 우리는 하느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뛰어났던 빠민 사부(4-5세기)는 세 가지 매우 유용한 원칙이 있다고 말하는데, 곧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는 기도,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비사리온 사부(4-5세기, 대 안토니오스 성인과 대 마카리오스 성인의 제자)의 제자인 둘라스 사부는 ‘교부들의 금언집’에서 증언하기를, 자신의 스승이 손을 들어 올

린 채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대 바실리오스 성인은 말하기를, 끊임없는 기도는 삶 전체의 방식을 통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의 삶이 바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인 이삭 성인(7세기)은 성령의 은총이 우리 마음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기도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마음 안에 계시면 잠을 잘 때조차도 기도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토스산의 한 원로는 어떤 여성에게서 받은 편지를 소개하는데, 그 편지 속에서 여성은 말하기를, “신부님, 저는 두 아이를 둔 과부로서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겨우 여덟 시간만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분명코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처럼 하느님께 자기 전부를 바치는 사람에게 하느님도 당신의 사랑을 전부 주십니다.

아타나시아



대교구

■ 프리오디온 시작

오늘 2월21일 주일부터 프리오디온 기간이 시작됩니다. 프리오디온 기간은 우리 정교회의 일 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기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번 프리오디온 기간에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여 영적으로 준비합시다. 프리오디온 첫 주장은 금식이 없습니다.

■ 예배 참여

하느님의 도움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각 지역성당에서는 그 동안 성당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신자분들에게 연락하셔서 단계에 따른 인원 수 대로 신자 분들이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신자분들도 각 성당에 연락하셔서 예배 참여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성서공부

매주 월요일 한국정교회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되는 성서공부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으로부터 베드로1서의 말씀을 배우

고 있습니다. 성서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과 영성센터 건립을 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과 영성센터 공사는 5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비 815,401,496원이 있고 447,288,504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모님의 중보로 이 거룩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2021년 가을에 성당 문과 영성센터 문 여는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공사대금이 모일 수 있도록 신자 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은행 (재)한국정교회유지재단 : 1005-602-591496)

양구 성 안드레아 성당

■ 양구 성당 예배안내

양구 성 안드레아 성당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두 차례씩 주일 성찬예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므로, 예배참석이나 기타용무로 성당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은 미리 예레미야 조정진 신부(010-5164-021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